

：

가

1)

()

가

가

가

가

가

가

： , , , , 가

I.	
II.	
III.	가
IV.	:

I.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이슈에 적절하게 답변할 바람직한 기독 지식인을 요구하고 있다. 바람직한 기독 지식인을 제안하기 위해서 성서본문에서 소개하는 모범적인 지도자와 지식인의 범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율법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람직한 기독 지식인을 고찰할 때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 단락을 살펴보는 까닭은 유대사회에서 안식일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사회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선적인 가치이며 중요한 정신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유대 종교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 수 있다. 유대사회를 지탱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중요성은 모든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 종교지도자의 최우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을 고찰함으로써 안식일의 우선적 가치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예수와 유대 종교지도자 사이의 해석학적 관점을 성찰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독 지식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안식일 준수와 연관된 논쟁 단락은 예수와 유대 종교지도자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위, ‘해석학적 위치’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 주목하도록 한다. 안식일 논쟁과 연관된 누가복음의 단락들

(6:1-5; 6:6-11; 13:10-17; 14:1-6)을 해석학적으로 살펴보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유대 종교지도자와 예수의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의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이슈에 대한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식인의 재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식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석학적 위치’와 ‘재현’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다양한 이슈에 적절하게 답변하는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안식일 준수로 인해서 논쟁하는 누가복음의 단락을 고찰하고 예수와 유대 종교지도자가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해석학적 위치’와 ‘재현’을 위한 실천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재해석하는 예수의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태도를 적절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제시함으로써 법규와 제도에 집착하는 유대 종교지도자의 무지와 위선을 폭로하고 진정한 지도자로서 모범적 삶을 살았던 예수의 해석과 실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해석학적 작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하고 지식인의 실천적 태도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빈부의 양극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이주민의 공존,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현존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이슈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과 답변을 제시할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통과 대화를 바라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 그리고 소수자를 위한 ‘해석학적 위치’와 ‘재현’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충분

한 분석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밝혀둔다.

II.

1.

한국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요즘처럼 뜨거운 때도 없었다. 대형교회 지도자의 부도덕성과 비리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가열한 시점에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인은 19세기 드레퓌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등장했다(강수택, 2000: 507). 누가 과연 지식인이며 지식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무엇인가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을 통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지식인은 누구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지식인, 특히 기독교 지식인의 시각과 태도는 바람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독교 지식인은 누구인가? 기독교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 지식인은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기독교 지식인과 연관된 다양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interpretative position)’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지식인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해석학적 위치’라는 용어는 지식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적인 통찰에 주목하는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주제에 대한 그(또는 그녀)의 실천적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가 지적인 통찰뿐만 아니라 실천적 편향성을 요청하는 까닭은 바람직한 지식인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특

정 계층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인 스스로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Schüssler-Fioorenza, 1990: 45).¹⁾ 다시 말해서 지식인은 사회의 여러 계층을 대변하거나 재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비판적 지식인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해석학적 위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해방과 민족주의에 관해 쓰는 것은 아무리 암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해방과 민족주의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세계관을 제국주의 관점으로 세계화하는데 있어서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국주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기 때문이다(1993: 337).

지식인은 특정한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사이드(Said)의 견해는 옳다. 특별히 사이드가 문화와 제국주의의 연관성을 연구한 후에 지식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관한 견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지적인 중립은 있을 수 없으며 지식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석학적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억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주변에 속한 사람들을 대변할 것

1) 피오렌자(Schüssler-Fioorenza)는 해석자의 ‘위치’와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쪽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식인은 지적 중립이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지적인 혹은 해석학적인 위치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인가 아니면 중심에 속한 사람들을 대변할 것인가라는 지적인 통찰과 실천적 의지 앞에서 자신들의 ‘해석학적 위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식인이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계층을 위한 학문적이고 지적인 시각을 선언하고 실천적 의지를 밝히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적인 가치중립 지대는 있을 수 없고 분명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되어야 한다. 지식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표명해야만 하는 ‘해석학적 위치’는 사회의 모든 분야와 연관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크 부렛(Mark G. Brett)은 ‘우리’와 ‘타자’의 구분이 ‘판단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해석학적 위치’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라는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타자’로 생각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명백하거나 암묵적이든 간에 그와 같은 이항대립은 사회적 담론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찰해 왔던 것처럼 가장 논쟁적인 사회적인 구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이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 타자성은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만약 타자성이 항상 누군가가 서 있는 곳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상태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언어적 기획, 수사학과 판단의 문제로서 간주되어야한다(1994: 65).

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언어적 판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기독교 지식인은 부렛(Brett)이 지적했던 “관계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빈부의 양극화, 세계화와 지역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현존 그리고 통일과 평화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으며 기독교 지식인이 적절하고 대안적인 목소리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과 “해석학적 위치”의 연관성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이슈와 주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 지식인을 포함하는 모든 지식인은 그 스스로의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해야 하는 까닭은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중립적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인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연관해서 언어적, 정치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분명한 찬성과 반대를 선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이드(Said)는 『지식인의 재현(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이라는 책에서 지식인의 위치, 역할 그리고 재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사이드(Said)는 지식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하고 어디에서 있는가?"(1994: 65)라고 묻고 있다. 지식인은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또한 특정한 계층이나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은 옳다. 지식인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외쳐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표명한 진리가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 지식인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있으며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의 편에서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석학적 위치'에 관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해석학적 관점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진리와 관련해서 무엇을 표명하고 선언할 것인가? 어떤 계층이나 계급의 편에 설 것인가? 지식인이 진리와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실천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면 결국 지식인은 지적인 가치중립의 장소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자신의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재현해야 한다. 지식인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이드(Said)는 그 스스로의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하면서 지식인은 언제나 '약한 사람과 재현되지 않는 사람과 같은 편'(1994: 17)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지식인은 진리를 탐

구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이드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지식인이 언제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고찰하는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과 연관해서 기독교 지식인이 외쳐야 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대변하고 재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리에 대한 표명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대변의 역할을 수행할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는 권력과 지식의 상관성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요청한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게 할 때 권위적이고 억압적 사회 구조에 대항하고 그것의 부적절함을 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식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사이드(Said)는 지식인은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은 활동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적 삶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1994: 89-90)²⁾라고 주장한다. 권력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는 동시에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목소리의 재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해석학적 위치’를 표명하는 것은 중요한 지식인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지식인이 권력과 지식의 상관성 속에서 권력에 맞서서 비판적 목소리를 표명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

2) (Said)

(co-opted intellectual)

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지식인은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박영신이 지적하는 것처럼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고 감히 하지 못하는 거북한 질문을 던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몫을 자신이 맡고 자신이 맡고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1993: 73)을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지식인은 예언자적 목소리를 외쳐야 하는 것이다.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향해서 비판적 성찰을 제시해야 하는 기독교 지식인은 그 스스로를 위한 적절한 정체성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영신은 권력과 연관된 지식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성인이 이 땅에 온 것은 어느 특정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이 세력이 내세우는 주장과 입장, 이익과 이념, 운동과 정책 방향의 대변자가 되고 이것들을 변호하고 이들과 유착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특정 지도 세력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는 그 세력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공공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가 속한 세력의 귀가 듣기 좋고 눈에 보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마련이다(1993: 74).

기독교 지식인은 권력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분명한 진리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기독교 지식인은 결코 진리를 표명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 없다.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권력을 넘어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할 때 사회적 이슈와 함께 권력이나 이익에 맞서서 '자기 반성적 투쟁'(정정호, 2002: 207)을 지속하는 기독교 지식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권위적인 구조를 폭로하고 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식인의 '재현'이다. 페미니스트 포스트콜로니얼 비평가

인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를 ‘대표하는 것’과 ‘다시 표현하는 것’이라는 양가적 측면으로 설명한다(1999: 256). 지식인과 ‘해석학적 위치’의 상관성에서 살펴볼 때 지식인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표현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식인의 ‘재현’은 말하는 사람과 대신해서 언급되는 주체가 항상 동일하게 일체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Hall, 1994: 392). 다시 말해서 지식인은 재현하려는 주체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이 재현하려는 주체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현하는 주체의 목소리를 담론의 전면에 가지고 오려는 해석학적 시도 또한 중요하다. 지식인은 분명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식인의 목소리는 외롭다"(Said, 1994: 75)³⁾는 사실이다.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하면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절실한 삶을 재현하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따르게 된다. 지식인은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목소리를 담론의 중심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재현하고 결정할 권력이나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곽푸란(Kwok Pui-lan)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동체 내부에서 여성, 주변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민중)은 그들을 위해서 진리가 되어야 할 것을 결정할 권력을 갖지 못했다"(1995: 17)는 점은 지식인의 ‘재현’을 위한 역할에 주목하게 한다. 따라서 지식인의 역할은 소외된 사람들 스스로 그들의 목소리를 재현하도록 하는 동시에 담론의 전면에 그들의 목소리가 재현되도록 돕는 것

3) " " (Said) 가
 가 .

이다. 태혜숙은 이와 같은 지식인과 ‘재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윤리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그들이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것을 담론과 문화영역에 제대로 끌어들이야 한다. 하위주체들이 현장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직접 재현하는 움직임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담론화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필요하다(2001: 120).

지식인이 재현하려는 힘없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담론의 전면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제적인 담론의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식인은 계속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결국 지식인의 ‘재현’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경험을 재현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지식인은 타자로서 담론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담론의 중심에서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석학적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식인이 대변하고 재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른 말로 말하는 사람’일 수 있다.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 말해 왔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세고비아(Fernando F. Segovia)는 ‘다른 말로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른 독자들은 다른 해석학적 유형들과 읽기전략들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현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다차원적 사회 구성체의 빛에서 다른 방법으로 읽는 것으로 그들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한 읽기는 다른 말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하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말들에 의해서-종종 있는 것처럼-빼앗기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읽기는 ...비판적 대화를 요청한다(1995a: 31).

담론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간과되었던 목소리는 지금까지 담론의 전면에 있던 목소리이다. 지식인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재현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도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태도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여성이주민의 현실을 여성신학자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는 오현선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재현과 연관해서 여성이주민의 ‘현실에 대한 ‘성찰적 인식’, 현실을 그들의 눈으로 신학화 하는 것, 저항에 연대하기”(2007: 345-347)와 같은 구체적인 세 가지의 과제로 설명한다. 지식인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론의 중심으로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실천적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오현선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지식인의 재현과 관련해서 기독교 지식인은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인식이 요청된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노력하는 기독교 지식인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관계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이론화 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힘이 없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재현하려는 신학적 작업이 요청된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재현의 노력과 함께 기독교 지식인은 저항의 담론에 연대하고 참여하려는 실천적 삶 또한 중요하다. 기독교 지식인을 위한 성서적 고찰을 위해서 살펴보려는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은 힘없는 사람들과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고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위한 저항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II. 가

바람직한 기독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할 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삶과 정신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선생과 모범적인 지식인의 삶을 보여준 예수의 정신 가운데 안식일 논쟁을 소개하는 누가복음의 단락은 매우 중요한 관점을 나타내준다(6:1-15; 6:6-11; 13:10-17; 14:1-6). 이 단락들과 연관해서 누가복음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고찰하는 동시에 안식일 논쟁의 당사자인 유대 종교지도자와 누가복음의 예수의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인에게 필수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기독 지식인은 누구이며 어떤 관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1. 가

유대교와 유대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율법이었던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단락들을 고찰하는 하는 것은 참된 스승과 진정한 지식인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Caird, 1977: 98).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의 정체성 형성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특히 유대 종교지도자는 안식일 준수의 문제에 집착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윤철원, 2001: 124). 안식일 준수의 문제는 예수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의 기독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살펴보면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의 실천을 보여주는 예수, 안식일 준수의 율법적 실천에 제한되어 있는 유대 종교지도자와의 논쟁을 고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 지식인의 모습을 제안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 이야기를 통해서 초기기독교 신앙공동체

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안식일 논쟁과 관련하여 김득중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초기 기독교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본문(6:1-11)이 안식일의 행동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아직 안식일 준수를 포기하지 않은 초대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특히 6장 9절에 반영되어 있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는 논쟁이 주요 이슈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 이 공동체는 안식일을 준수하되 자기 나름대로 즉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1993: 327).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 단락들은 예수와 유대 종교지도자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해석학적 갈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안식일 준수에 관한 상이한 실천적 태도를 부각함으로써 초기 기독교공동체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준수와 연관된 예수와 유대 종교지도자의 전적으로 다른 해석학적 접근과 상이한 실천적 태도에 주목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식인은 지적인 혹은 해석학적 가치중립의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 실천, 특히 안식일 준수와 그 정신의 올바른 해석과 관련하여 유대 종교지도자 뿐만 아니라 초기기독교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도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태도에 관한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유대인의 정체성과 생존의 근거는 안식일 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안식일 준수와 연관된 실천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근, 1990: 115). 엘리스(E. Earle Ellis)는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의 치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고 더 이상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 양자택일은 없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수의 행동은 그의 선교에 대한 해석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구속적이고 긴급한 것으로 생명의 문제 또는 죽음의 문제이다 (1981: 108).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안식일 치유는 생명과 죽음 문제와 밀접해 있으며 그 곳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과 생명을 파괴하는 선택의 실천적이며 해석학적 결단이 존재할 뿐이다. 안식일 율법의 규정과 규칙과 연관해서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행위가 안식일 율법을 가장 적절하게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예수가 안식일에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을 행하는 이유는 유대교의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도자의 위선과 무지를 폭로하려는 것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능가하는 대안적이고 성찰적 해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상근이 지적하는 것처럼, 종교지도자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 자신의 관념을 하나님의 뜻 이상에 둔 것"(1990: 115)을 폭로함으로써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복음이 생명을 위한 진정한 선택인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제안한다면 헨스만(C. R. Hensman)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1990: 71)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대다수의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행하신 까닭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안식일 논쟁을 고찰한다면 예수와 종교지도자의 논쟁을 보다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 이외에 치유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가르침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안식일 준수가

노동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할지라도 특히 안식일의 치유와 가르침은 노동자와 소외 계층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식일 준수는 긍정적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 단락을 통하여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윤철원은 안식일 준수 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의 정체성에 크게 기여했지만, 많은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짐을 안겨 주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앗아 가 버리는(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예수는 이러한 안식일 폐단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2001: 124-125).

누가복음의 안식일 준수 문제와 관련된 단락을 고찰함으로써 유대 종교지도자와 누가복음의 예수 사이의 명백한 실천적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찰은 지도자와 해석자의 역할과 위치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하는 동시에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해방적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의 소중함을 고려하게 한다.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주제를 유대 종교지도자의 관점과 누가복음의 예수의 시각을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해석과 위치의 간극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안식일 준수의 문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기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식일 논쟁에 나타난 유대 종교지도자와 예수의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의지를 점검함으로써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진정한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2.

누가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준수와 연관해서 예수의 반대자로 등장하는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율법 전문가"(Stein, 1992: 315)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유대사회와 유대인에게 커다란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했던 유대 종교지도자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율법사를 포함한 유대 종교지도자는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실천하는 예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 안식일 논쟁을 소개하는 누가복음의 단락들(6:1-5; 6:6-11; 13:10-17; 14:1-6)은 모두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유대 종교지도자와 예수 사이의 율법의 해석과 실천의 대립을 설정하고 있다. 율법의 전문가로 자처하는 유대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회당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의 제도를 더욱 사랑"(Caird, 1977: 99)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사회를 위한 제도의 안전이나 유지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 유대교와 유대 사회의 스승이며 전문가였던 유대 종교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보다 제도나 규범에 얽매인 사람들이었다. 율법의 본질적 의미와 정신을 파악하고 주목하는 대신에 유대 사회를 유지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으로 인해서 맹목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당커(Frederick W. Danker)는 안식일 논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누가복음 6:1-11 단락을 주석하면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함이 특별히 주목되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 선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에게 있어서 그 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것이다(1988: 133).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안식일 준수의 정신을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함에 주목하는 날이라고 그 정신과 의미를 올바로 인식했다면 제도나 법규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행동은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신에 유대사회의 종교적 규범과 태도에 집착한 까닭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듭되는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논쟁단락에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올바른 정신을 재해석하며 적절하게 실천하는 예수의 모습에 대립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분개하거나(6:11) 부끄러움을 당하고(13:17) 그들의 무지와 위선으로 인해서 침묵해야 했다(14:6).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을 질문하게 한다.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포함한 유대 종교지도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율법의 정신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위선이 폭로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보여준 재해석과 실천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상근은 종교지도자의 무지와 위선에 대한 침묵을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대항하여 대답할 능력이 없음"(1990: 240)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기력한 유대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유대사회에서 율법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지도자는 유대사회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것이다. 김재성은 누가복음 13:10-17에 대해서 논하면서 회당장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회당장은 예수와 정반대의 사람이다. 그는, 그 여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그 여인이 나온 데 대해 기뻐하거나 예수의 기적적 치유에 대해서 놀라는 기색도 없다. 오히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유는 한 가지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때문이

다. 왜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 그는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그의 논리는 이것이다. 다른 날 고쳐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느냐는 것이다(1999: 51).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지도자였다면 유대 종교지도자는 제도와 규범보다 의미와 정신에 주목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한 유대의 종교지도자는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일말의 인정도 없는데"(김재성, 1999: 52) 사람들로 표면적으로 논리와 합법을 가장하고 있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의 제도나 규범을 통한 사회구조와 권력 지향적 태도는 "권력지향의 어용 지식인(co-opted intellectual)"(Said, 1994: 89)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지식인과 지도자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눈과 입이 되어주려는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묘사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결국 생명과 죽음의 결단 앞에서 제도나 법규에 얽매인 죽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사회조직이나 종교적 기득권에 맹목적 시각으로 인해서 안식일 치유와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제도와 법규에 편향된 유대 종교 지도자의 '해석학적 위치'는 안식일의 본래적 정신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누가복음의 안식일 준수와 연관된 유대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산적해 있으며 제도나 규범을 뛰어넘어 치유와 회복의 정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빈부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현실, 북한이탈주민의 공존과 북한선교와 통일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유대 종교지도자의 관점을 능가하는 예수의 재해석과 실천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예수의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의지의 핵심은 "약자를 변호하거나 병자를 고쳐 주는 것"(김재성, 1999: 50)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안식일 준수를 어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안식일 법을 준수하지 않고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안식일 법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법으로 변질"(최영실, 1991: 66)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율법의 정신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선포하는 것이 참 스승과 진정한 지도자로서 예수의 역할이었다. 안식일 논쟁 단락에서 예수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6:5)으로 선언함으로써 율법 전문가로 자처하던 유대 종교지도자와 구별되는 권위와 해석학적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는 "안식일 계명의 해석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것"(박수암, 2005: 150)을 선언하는 것이다. 예수가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논쟁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향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재해석과 실천의 의지가 절대적인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영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식일 준수에 대한 예수의 재해석은 "예수 자신이 외치는 해방의 소식이야말로 구약성서가 예언한 참된 율법의 성취"(1991: 66)라는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누가복음의 예수는 참 스승이며 진정한 지도자로서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와 신분의 사람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한 해방의 소식을 전한 절대적 권위를 지닌 분이다.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율법의 정신에 대한 예수의 재해석과 실천적 의지는 율법의 법규나 규범에 얽매이거나 집착했던 유대 종교지도자와 전적으로 구별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해방시키고자 원하셨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에 주목한다. 예수께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가복음의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렀던 까닭은 예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리와 죄인’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단지 그 자신을 위한 권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치유와 해방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Stein, 1992: 190). 누가복음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명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Danker, 1988: 131).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가 유대 종교지도자의 위선적 태도를 넘어선 진정한 이유는 바로 고 통당하는 사람들과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실천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3:10-17의 단락에 등장하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아왔던 여인의 비참한 현실을 간파하고 있는 유대 종교지도자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예수와 관련해서 스타인(Robert H. Stei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수의 통렬한 탄핵은 회당장 뿐만 아니라 자비와 동정보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우선하는 그와 같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진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에 무관심한 반대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에게 있어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사람들의 비참함과 필요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이와 같은 종교적 사고는 정말로 가증스러운 것이다(1992: 374).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예수의 실천적 태도는 율법 전문가의 권위

를 갖고 유대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집착하며 살았던 유대 종교지도자의 무지와 위선을 폭로시켰다. 율법의 법규와 규범에 얽매어서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유대 종교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필요와 비참한 삶에 주목하지 않는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자와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안식일 논쟁 단락들을 통해서 예수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까닭은 치유와 회복의 행위를 통한 실제적 해방과 동시에 "모든 다른 의무들에 우선하는 긴급한 필요에 복종하여 행동"(Caird, 1977: 171)하는 실천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성은 "예수는 그 여인의 딱한 처지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순간, 모든 생각이 그 여인을 고쳐 주는 데만 집중된다.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따질 겨를이 없다"(1999: 51)고 지적한다. 예수의 실천적 태도는 안식일과 치유에 대한 논의보다 해방과 자유를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제도나 종교적 의무와 규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나 절박한 필요를 무시한 까닭은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이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삶보다 제도나 규정을 선택한 위선적인 종교적 태도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의 예수가 유대 종교지도자의 위선적 태도를 폭로하고 새롭게 제안하려는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준수와 연관된 제도나 규정에 얽매이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6:9)을 선택하는 때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6:1-11 단락에서 강조하는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생명을 향한 선택에 주목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를 오히려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지도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행동과 실천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다(Craddock, 1990: 82).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

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이며, 지식인이 생명을 구원하려는 실천적 의지가 없는 것은 생명을 멸하는 것이라는 예수의 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 종교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제도와 법규에 집착하는 유대 종교지도자의 무지와 위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지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예수의 재해석과 실천적 태도를 통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진정한 기독교 지식인의 모습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목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 지식인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치유와 회복을 선택함으로써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유대 종교지도자와 달리 예수가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가 ‘해방’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누가복음 13:10-17 단락에 등장하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본문은 예수의 해방적 측면을 강화해 주는 단락이다(Marshall, 1983: 83). 안식일의 해방적 측면에 대해서 마셜(I. Howard Marshall)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녀는 18년 동안 그녀를 속박하고 있는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매여 있었다’라는 과거형은 현재형에 해당된 과거형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자유 해졌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속박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18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래서 당장 해방을 받아야 했다. 그 날이 안식일이든 상관없다. 오히려 안식일이 해방을 위한 적기

이다. 사탄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가 고조된다(1983: 83).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은 결국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가복음의 예수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속박을 당한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고 해방시킴으로써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키고 있다. 18년 동안 속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여자와 연관된 이 단락(13:10-17)은 결국 "안식일 문제와 여자의 육체적 치유만이 관건이 아니라, 여자의 인격적, 사회적 회복의 의미를 아울러 담고 있는 것"(김경진, 2000: 188)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예수의 안식일에 대한 재해석을 위한 치유의 행위는 육체적, 사회적, 종교적 치유와 해방을 포함한 전인적 측면의 행위와 실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은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정신과 관계가 있다. 누가복음의 예수가 18년 동안 속박되어 살아왔던 한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해방의 기쁨을 제공한 것은 예수의 사역이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누군가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시키는 주체와 일치"(Tannehill, 1996: 219)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예수는 안식일의 정신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태도를 갖는 지도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은 한국사회에 산적해 있는 사회적이고 종교적 이슈와 문제를 향해서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지식인이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을 본받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오랜 세월 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IV. :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 단락은 예수와 유대 종교지도자의 분명한 해석학적 차이를 보여준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하여 유대 종교지도자의 무지와 위선은 결국 제도와 법규에 얽매어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유대 사회를 위한 법규와 규범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에 무관심한 유대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주목하는 기독교 지식인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지만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율법의 제도와 법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힘들고, 약하고, 버림받고, 목소리가 없는 소외 계층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지식인이 없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율법의 정신보다는 오히려 법규와 규범이나 제도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속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함과 필요를 거절하는 유대 종교지도자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지식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식일 논쟁 단락들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재현하지 못했던 사람들, 즉 제자들(6:1-2), 손 마른 사람(6:6-11), 등이 꼬부라진 여인(13:11-13), 수종병 든 사람(14:2)은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바람직한 지식인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가운데 속박과 고통과 상처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대조, 생명을 구하는 것과 파괴하는 것 사이의 대조로 요약할 수 있다면 결국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결단과 연관된다. 안식일 준수의 진정한 정신은 제도나 법규 그리고 규정에 얽매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선을 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절규나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외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를 성찰하고 실천적 태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식일 준수와 연관된 누가복음의 예수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비참한 삶과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통한 해방의 정신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기독 지식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향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성서학자를 포함한 기독 지식인은 성서본문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분명한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해야 한다. 지식인의 ‘해석학적 위치’에 대해서 세고비아(Segovia)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비평가들은 본문과 독자 사이의 필수적인 중재자가 되는 것을 그만 둔다. 왜냐하면 비평가 또한 일정한 사회적 맥락과 관심뿐만 아니라 이론적 틀에 기초한 일련의 읽기전략이나 특별한 읽기전략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비평가들은 다른 독자와 마찬가지로 위치가 정해지고 관심을 갖게 된다(1995b: 13).

성서학자를 포함한 지식인은 이제 그 스스로의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해야 한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뚜렷하게 구분함으로써 ‘해석학적 위치’를 표명해야 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기독 지식인은 ‘해석학적 위치’와 실천적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수없이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담론의 중심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담론의 주체가 되도록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이슈와 관련해서 기독 지식인은 분명한 ‘해석학적 위치’를 선언하고 실천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 단락을

통해서 기독교 지식인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도록 요청하는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이슈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바람직한 기독교 지식인은 먼저 ‘생명’을 향한 시선을 소유해야 한다.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단락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예수의 관심과 애정은 생존과 치유를 통한 회복과 해방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요청하는 기독교 지식인은 예수가 바라보고 귀를 기울였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을 성찰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빈부의 격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전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공존, 북한선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통일의 관심과 같은 사회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없이 많은 난제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식인은 끊임없이 ‘생명’을 위한 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기독교 지식인은 성서적 ‘정의’를 위한 시각을 지녀야 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회의 안전과 제도의 유지 그리고 율법의 법규와 규범에 얽매인 유대 종교지도자의 전철을 밟지 않고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재해석하고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었던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 지식인이 요청된다. 제도와 법규보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했던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요청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기독교 지식인의 덕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지식인은 ‘평화’를 향한 통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실천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의 재해석과 실천적 의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치유와 회복을 통한 ‘평화’와 관계가 있다. 소통과 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평화’를 위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연대하는 기독교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강수택 (2000), "근대, 탈근대, 지식인" 『한국사회학』, 34, 507-529.
- 김경진 (2000),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 김득중 (1993), 『누가복음 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재성 (1999), "아브라함의 딸: 누가복음 13:10-17," 『살림』, 128, 47-59.
- 박수암 (2005), 『신약주석 누가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박영신 (1993), "즐거운 유배자: 지성인의 삶: 사이드와의 대화," 『현상과 인식』, 17(58), 63-88.
- 오현선 (2007), "욕구와 통제 사이 여성이주민의 현실과 여성신학의 과제," 무극 한승홍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편집위원회 편, 『한국신학의 지평』, 324-348.
- 윤철원 (2001), 『누가복음서 다시 읽기-내러티브의 구조와 세계』, 서울: 이레서원.
- 이상근 (1990), 『신약성서 주해 누가복음』, 대구: 성등사.
- 정정호 (2002), "오리엔탈리즘, ‘탈’식민주의: ‘타자’의 문화윤리학-21세기 한국지식인을 위한 추방자 지식인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 『영미어문학』, 65, 189-211.
- 최영실 (1991), "예수와 해방 운동-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증언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논총』, 5, 53-75.
- 태혜숙 (2001),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Brett, Mark G. (1996), "Interpreting Ethnicity: Method, Hermeneutics, Ethics," Mark G. Brett(ed.), *Ethnicity & the Bible*, Leiden: E. J. Brill, 3-22.
- Caird, G. B. (1977), *Saint Luk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Craddock, Fred D. (1990), *Luke*,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 Danker, Frederick W. (1988), *Jesus and the New 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Ellis, E. Earle. (1981),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 Co.
- Hall, Sturat. (1994),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Patrick Williams, Laura Chrisman (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London: Harvester Wheatsheaf, 392-403.

- Hensman, C. R. (1990), *Agenda for the Poor: Claiming Their Inheritance: A Third World's Reading of Luke*, Colombo: The Centre for Society and Religion.
- Kwok, Pui-lan. (1995), *Discovering the Bible in the Non-Biblical World*. Maryknoll: Orbis Books.
- Marshall, I. Howard. (1983),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루가복음』, 국제성서주석, Vol. 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Said, Edward W. (1994),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The 1993 Reith Lectures*, London: Vintage.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London: Penguin Books.
- Schussler-Fioreza, Elisabeth. (1990), *Bread Not Stone: The Challenge of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Edinburgh: T&T Clark.
- Segovia, Fernando F. (1995a), " 'And They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 Competing Modes of Discourse in Contemporary Biblical Criticism," Fernando F. Segovia and Mary Ann Tolbert (eds.) *Reading from this Place: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Vol.1, Minneapolis: Fortress Press, 1-32.
- _____ (1995b), "Cultural Studies and Contemporary Biblical Criticism: Ideological Criticism as Mode of Discourse," Fernando F. Segovia and Mary Ann Tolbert (eds.) *Reading from this Place: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Global Perspective*, Vol. 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17.
-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 Robert H. (1992), *Luk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Press.
- Tannehill, Robert C. (1996), *Luke*,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Abstract

The Exemplary Christian Intellectuals:
Research on the Sabbath Controversy in Luke's
Gospel

Heung Soon Park(Soongsil University)

Korean Society and Korean Christianity ask for the exemplary Christian intellectuals who respond to multiple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issues. We should look at the Bible which gives pictures of good examples of intellectual and leaders in order to propose Korean Christian intellectual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e should investigate the interpretative differences and gaps between Luke's Jesus and Jewish religious leaders regarding the Sabbath law in order to grasp an appropriate meaning of the Law in Luke's Gospel. While we look at the issue on the Sabbath law between Luke's Jesus and Jewish religious leader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terpretative position' of the intellectual and the pertinent roles of the intellectual.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issues on the Sabbath controversy (Lk 6:1-5; 6:6-11; 13:10-17; 14:1-6) in order to discover the interpretative differences and gaps between Luke's Jesus and Jewish religious leaders. In this paper firstly, I investigate not only an appropriate 'interpretative position' of the intellectual, but also pay attention to an representation of the

intellectual. Secondly I would like to consider an essential meaning of the Law, especially the Sabbath law to compare the interpretation of Luke's Jesus with that of Jewish religious leaders. It seems to be an awkward connection between the Sabbath controversy and 'the interpretative position' of the intellectual.

Key Words: Christian Intellectual, the Sabbath controversy, interpretative position, Representation, Luke's Gospel

